

# 原電은 死亡事故제로

82년도 에너지産業災害

石炭등에서 1,600명 희생

세계의 모든 報道機關들은 原 原子力支持그룹 「APG」가 발행 電以外的의 에너지源의 생산 및 분 하고 있는 영국의 뉴스誌 「原子 배와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발생 力問題」는 이점에 대해 다른면에 하고 있는 死亡事故보다도 商業 서 뚜렷하게 설명한 데이터를 정 用 원자력발전소로 부터의 피해 리했다.

사고의 위험성에 보다 큰 관심을 1982년에는 세계의 원자력의 의 기울이고 있다. 16件的의 큰사고가 발 생하여 1,672명이 사망한데 반하 여 原電에서는 한사람의 사망사 플로리다州에서 현실적으로는 발 고도 없었으나 이 대부분의 사고 생되고 있지않는 원자력사고를 방 를 보도기관에서 거의 취급하지 송했던 일을 들 수 있다. 않았다고 한다.

82년의 주요 에너지關聯死亡事故

日字	事故의 内容 · 場所	死亡者數
1/17	모조젤江에서 貨物船이 가스파이프에 충돌	5
1/21	켄터키州에서 炭鑛爆發	7
1/21	멕시코에서 石油輸送管이 폭발	8
2/15	뉴판드랜드섬에서 石油採掘리가 침몰	84
3/25	칼카타에서 石炭이 붕괴	18
4/5	폴란드에서 炭鑛폭발	15
4/7	샌프란시스코에서 石油탱크로우리가 버스가 충돌	7
5/10	유고슬라비아에서 탄광폭발	39
6/18	폴란드에서 탄광사고	10
10/6	리비아에서 땅이 붕괴	200
10/6	폴란드에서 탄광사고	6
10월 중순	旅順에서 精油所가 폭발	5
11/2	아프가니스탄에서 石油탱크로우리가 충돌	1,100
11/3	日本에서 탄광폭발	5
11/29	폴란드에서 탄광폭발	18
12/21	베네주엘라에서 石油火力發電所폭발	145

## 日·中共原子力協力 閣僚會議에서 合意

北京에서 열린 日·中共閣僚會議은 9월 5일 上午 제1日の 全體會議에 이어 日·中共 双方의 關係閣僚끼리의 個別會談에 들어가 意見交換을 했다고 日本 電氣新聞이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 가운데서 日本側은 安倍外相과 宇野通商相이 日·中共間의 새로운 協力案件으로서 中共에 대해 原子力協力を 提案했으며 具體的으로는 ① 日本은 中共의 國際原子力機關(IAEA)에의 加盟을 指示한다. ② 中共의 IAEA加盟後 原子力の 平和利用에 限하여 日·中共原子力協力の 政府間協議를 시작하겠다는 것인데 中共側도 이를 全面的으로 받아들였다고 北京發 時事通信을 引用 보도 했다.

이처럼 제3회 日·中共閣僚會議에서 原子力協력에 兩國이 合意함으로써 日·中共兩國의 原子力協力問題는 새로운 局面을 맞이 할 것 같다.

原子力에 관한 日本과 中共과 의 協力關係는 日本原子力 産業會議과 中共政府間에 1981년에 체결된 「日中原子力平和利用覺書」에 의한 技術者의 交流가 主된 것이었으나 앞으로 平和利用에 대한 政府間協議가 개시됨에 따라서 原子力機器輸出이나 設計技術 供與등 廣範한 分野에서 協力할 수 있는 可能性이 있다.

지금까지 中共은 平和利用의 推進을 目的으로 하는 IAEA에 加盟하지 않고 核의 軍事轉用을 監

視하는 保障裝置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公式的인 兩國 政府베이스의 協力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던 것.

그러나 최근 中共이 IAEA 에 加盟을 申請함과 동시에 日本에 대해서 自主開發爐인 泰山發電所(300,000kw)나 輸入原子爐인 廣東發電所(900,000kw×2基)에 대해 協力을 要請하고 있기 때문에 日本政府에서도 政府베이스에서 協力을 開始할 時期가 온 것으로 判斷한 것이라고 新聞은 보도했다.

그러나 兩國의 政府間協議에 대해서는 韓國과 台灣에 대한 配慮 등으로 그 時期가 확실치 않으나 10월의 IAEA의 理事會에서 正式으로 加盟이 인정되면 필요한 條件의 하나가 成熟되는 것이라고 이 신문은 분석하고 그러나 對中共協力에 대한 日本政府내의 意見도 아직 決定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 中共, IAEA加盟申請

IAEA는 9월 5일 발표한 聲明 가운데서 中共이 이번에 IAEA 에 加盟을 申請한 것을 밝혔다. IAEA 理事會는 10월5일에 열리는 定例會議에서 中共의 加盟申請을 表決에 부칠 것으로 보인다.

IAEA의 브리크스 事務局長은 지난 8월초 北京에서 中共 外務省當局者와 이 문제에 대해 토의한 바 있다.

### FBR을 共同研究 佛 등 5 個國 새組織

프랑스의 原子力廳은 9월1일

의 原子力發電이라고 불리우는 高速增爐를 共同研究하기 위한 國際組織인 「알고」가 8월31일에 正式으로 발족했다고 발표했다.

參加國은 프랑스를 중심으로 西獨, 벨기에, 이탈리아, 네덜란드의 5개國. 이 가운데 네덜란드를 제외한 4개國은 84년부터 가동에 정인 프랑스의 高速增爐 「수퍼 케닉스」를 共同開發한 실적을 가졌다.

### 日, 川内原電 1 호기 8 月末 臨界에 도달

日本 九州電力의 川内原電 1 호기(PWR, 890,000kw)가 8월25일 上午 初臨界에 도달했다.

이 발전소는 79년 1월에 着工以來 日貨 2천9백억엔을 투입하여 추진되어온 것.

燃料 裝填을 7월11일~15일에 걸쳐 실시하여 그동안 각종 시험을 거쳐 이번에 臨界에 이르게 된 것이다.

川内市議會가 滿場一致로 原電의 誘致를 결정한 것은 1963년. 이 時點에서 起算하면 거의 20년을 거쳐 臨界에 도달한 셈.

### 炉事故報告시스템 IAEA 本部에 設立

IAEA는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本部에 世界的規模의 原子力事故報告시스템(IRS)을 設立할 方針下에 금년말 또는 來年初 發足を 목표로 준비작업을 서둘러고 있다.

IRS는 參加 各國에 通報機關을 指定하여 그로부터 原子力事

故데이터를 보고받아서 그것을 매년 1회 取合分析하여 敎訓을 導出하여 參加各國에 提供하는 시스템이다.

이 通報機關은 各國의 原子力安全機關을 構成하는 機構에서 선정하며 데이터를 均質化하기 위하여 事故에 관한 보고는 IAEA가 작성한 質問書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이미 經濟協力開發機構·原子力機構(OECD·NEA)에도 있으나 IAEA의 IRS는 NEA의 시스템을 收容하게 되는 것.

또 소聯을 비롯한 共產圈 諸國과 原子力시설을 保有하는 途上國(印度,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核不擴散條約 非參加 3개國도 포함)도 참가에 同意하고 있어 西方側 先進國中心이었던 NEA의 IRS보다 對象範圍가 확대된다.

### 佛, Chinon 2 호기 核燃料裝填을 끝내

프랑스의 Chinon B 原電 2호기(900,000KW, PWR)가 7월 28일부터 8월1일까지 核燃料의 初裝填이 실시되었다.

1호기(작년 1월 送電開始)의 裝填으로 부터 14개월만으로서 예정보다 數個月이 지연되고 있다.

그것은 79년 蒸氣發生器管材와 炉出入口鋼管의 内部被覆 밑에 微細한 균열이 發見되어 追加檢査와 필요한 技術의 改善을 시행했기 때문.

이 2호기는 77년 2월에 着工, 定格運轉은 83년12월에 실시할 예정이다.